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20

차　　　례

기네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에게 주신 가르치심

1972년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기네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자기 나라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왔다. 친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건설에 일떠선 자기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있었다.

당시 기네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기네의 실정에 맞지 않는것으로 하여 예상외의 후과를 빚어내고있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그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거둔 성과들을 고무격려하여주시면서 현시대가 매개 나라 혁명가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시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을 보아도 나라마다 다르다, 음식을 어떤 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먹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포크나 저가락으로 먹으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집어먹는다, 그러니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라고야 할수 없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네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에게 주신 가르치심들은 실로 귀중한것들이였다.



심장의 고백

1999년 10월 어느날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지도자가 조선을 네번째로 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를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군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적당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정말 **김정일**동지는 사상에서도 제일이시고 령도에서도 제일이시고 덕망에서도 제일이신 세상천하의 제일위인이시다.

절세의 위인을 심장을 다 바쳐 흠모하고 따른다는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것은 위인에게 매혹된 인간만이 터칠수 있는 심장의 고백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관

리성철

조선인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는것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관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다함없는 높은 존경과 끝없는 신뢰를 받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조선인민을 모시고 받드시려는 자신의 맹약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령도자가 수령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지도자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며 더우기 인민들은 꿈에서조차 바랄수 없는 일이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적선언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인민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의 심장의 고백이다.

2017년 3 월 어느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새형의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고심어린 연구를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한 과학자를 자신의 등에 업어주신 력사적인 화폭이 펼쳐져 사람들을 크게 놀래운 일이 있었다.

세계정치사의 어느 페지, 어느 나라 력사에 한 나라 령도자가 자기의 인민을 등에 업어올린 기록이 있는가,

령도자와 인민이 그 어떤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하나가 되고 령도자가 인민을 등에 업어 세계의 상상봉에 떠받들어올리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관이다.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한규철

세상에는 강국으로 자부하는 나라들이 있다.

광활한 령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하지만 이런 징표만으로는 강국을 론할수 없다.

그 모든것우에 당당히 강국이라 말할수 있는 제일국력이 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인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그것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입니다.》(《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6 페지)

단결로 시작되고 단결을 무기로 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것이 혁명이다.

세상에 단결을 지향하지 않은 당, 단결을 강조하지 않은 정치가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세상에 오직 하나 조선로동당뿐이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받들고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와 같이 신뢰하고 따르는 여기에 조선의 일심단결의 공고성이 있고 그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

2015년 9월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땅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권력과 황금으로도 살수 없는것이 인민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오직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천만을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는 진정한

사랑만이 인민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고 그 마음속에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의 기둥을 세워줄수 있다.

그 신념의 기둥이 있어 조선인민은 그 어떤 모진 광풍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이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속에서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들과 사변들을 끊임없이 안아올리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만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무한대한 위력이 있기때문이다.

천만사람이 말을 해도 한목소리이고 천만대오가 걸어가도 한걸음인 조선의 일심단결, 조선을 강국의 높이에로 받들어올린 그 위대한 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뿌리를 둔 무궁무진한 힘이다.

당과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쳐진 조선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이며 그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조선의 참모습

김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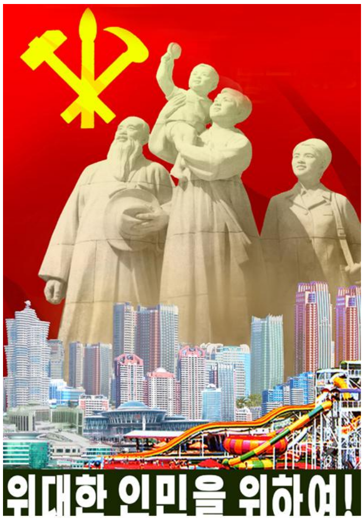
조선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그런것만큼 인민적인 정치리념을 내세우고 국가활동에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조선은 가장 인민적인 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조선이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도 견줄수 없는 위대한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기때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조선의 참모습은 당과 국가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권의 존재방식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근본핵이다.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며 모든 정책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는것은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여있다.



조선에서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사소한 요소와 행위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용화묵과하지 않는다.

멸사복무전으로 일관시켜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뜻이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며 물샐틈없는 비상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수도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이 건설되고 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성격과 본태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조선의 참모습은 인민들이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데서 표현된다.



많은 나라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만 인민들이 자기들의 운명과 후대들의 미래를 의탁하는 국가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인민들이 심장으로, 온넋으로 따르고 받드는 국가는 불패이다.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훌륭한 풍모이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당의 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적으로 관철한 조선인민이 있었기에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갖추어지고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이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품, 조국의 품을 떠나서 순간도 살수 없다는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있으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대업실현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칠 불같은 맹세가 끓어넘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손으로 지키고 보란듯이 꾸려나가려는 애국자대부대가 있는 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조선에서의 정면돌파전

김창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정면돌파전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제끼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다. 또한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한 적극적인 전진방식이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시련속에서 백배해진 자력자강의 위력,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에 대한 믿음은 조선인민에게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부닥치는 장애와 난관들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에서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문정숙

오늘 조선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조선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고 일생동안 배울수 있는 훌륭한 교육체계와 환경을 마련하고있으며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는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모두가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여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열의에 넘쳐 열심히 배우고있다











복된 삶을 누리는 조선의 로인들

김영석

《조선방문기간에 목격한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대단히 인상적이였다.

평양의 모란봉에서는 늙은이들이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건늠길에서 한 소년단원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안전하게 건네주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있었다.》

이것은 몇해전 조선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이 싱가포르의 어느 한 신문에 실은 글의 일부이다.

그뿐이 아니다. 누구나 조선에 오면 로인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는다.

조선에서는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이 철저히 구현되여 로인들이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도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근심걱정없이 생활하고있다. 양로원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훌륭히 꾸려져 보양생들 누구나 사회적인 관심속에서 혁명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생의 희열에 넘쳐있다.

하기에 조선의 년로자들은 당과 국가의 혜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하며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년로자들이 인생의 로년기에도 청춘의 활력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2018. 6


2017.11.7




2016. 7


2016. 2



2018. 10


2019. 5


2018. 7


2018. 10


2018. 7




2018.10


2019. 6


2018. 11


선거장
2019. 7


2017. 8


2016. 7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같은가?》

윤용남

몇년전 브라질의 한 웨브싸이트가 수십장의 사진들을 실으면서 가입자들에게 제기한 물음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물음에 조선의 건물이라고 대답한 가입자는 한명도 없었다.

후에 조선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것을 안 가입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물론 경탄이였고 놀라움이 따라섰다고 한다.

하다면 믿기 어려운 조선의 현실이 준 충격,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조선에서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한방면이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사면팔방으로 벌어지고있는 조선에 대한 제재는 한 나라도 아닌 제국주의련합세력에 의해 감행되고 몇달, 몇년도 아닌 70여년이나 지속되고있는 초강도제재이다.

탐욕스러운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려는데로부터 초강도적인 제재라는 썩은 씨앗을 묻어놓고 《붕괴》의 새싹이 움터나기를 이제나저제나 초조하니 기다렸다.

그러나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데 습관이 된 조선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하였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누구인들 놀라지 않겠는가.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준 것으로 하여 조선충격의 의미는 자못 크다.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로 하여 지금 조선에는 부족한 것도 적지 않고 어려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인민이 바라는 소원이 하나하나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런데도 조선의 《비참한 현실》이요 뭐요 하는 악선전과 매수된 《증인》들, 민족반역자들에 의해 꾸며진 《증거》자료들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행태로 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옳바로 보지 못하고있다.

2020년에 들어와 500여만명이라는 시청률로 보도계를 놀래운 평양취재보도물 TV방영은 오늘의 조선의 모습을 사실그대로 화면에 담은것으로 하여 많은 시청자들을 경탄과 놀라움의 세계로 이끌어갔다고 한다. 현지에서 직접 찍어보낸 외국의 어느 한 특파기자도 평양이 이렇게 멋있는 도시인줄 몰랐다고 감탄하였다.

조선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조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평양에 와서 믿기 어려운 제재속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조선치마저고리

조선치마저고리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아름답고 우수한 조선녀성들의 특색있는 민족옷이다.

저고리의 길이가 매우 짧은데 비하여 치마의 길이가 퍽 긴 조선치마저고리는 평면성과 립체성이 결합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아름답고 우수한 조선치마저고리차림은 오늘 조선녀성들의 옷차림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민족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되고있다.







《숙소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가겠다》

1974년 5월 조선을 방문한 세네갈의 쎈고르대통령은 3~4 일밖에 안되는 방문기간에 낮에는 여러곳을 참관하고 밤에는 숙소의 서재에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정독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쎈고르대통령이 조선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해당 일군에게 숙소의 서재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가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책들을 몽땅 가져가는것보다 요구하는 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의 요구대로 책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쎈고르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작별방문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주석각하의 로작들을 읽기는 하였지만 드문드문 읽다보니 거기에 담겨진 사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석각하의 로작들을 가지고가서 자기만 보자는것이 아니고 자기 동료들과 자기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다 보고 공부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쎈고르대통령의 이 말에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걸출한 위인상에 대한 다함없는 매혹과 칭송이 어려있었다.

《〈축전지〉가 방전되면 다시 조선에 오겠다》

탄자니아의 대통령이였던 니에레레가 1989년 탄자니아혁명당 위원장으로서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니에레레위원장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문제와 남남협조문제,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자유화바람에 다당제를 받아들인 결과 혼란과 민족분쟁이 일어난 문제 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주의깊게 듣고난 니에레레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젠 저의 〈축전지〉가 충분히 충전되였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저의 〈축전지〉에 구멍이 뚫려 새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완전히 충전되였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정세변화와 외부의 압력앞에서 잠시나마 동요하려고 했던 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정신을 차렸다는 솔직한 심정이 담겨져있었다.

니에레레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축전지》의 능력이 약화될 때마다 귀국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따라배워야 할 유일한 모범의 나라는 조선이며 자기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유일한 나라를 조선으로 보고있다고 진정을 말씀드렸다.

좌 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에 대하여

(전호에서 계속)

오성철: 예로부터 정치라는 말은 인민을 다스린다는 말로 써왔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멸사복무의 정치라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리성철: 멸사복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근본핵입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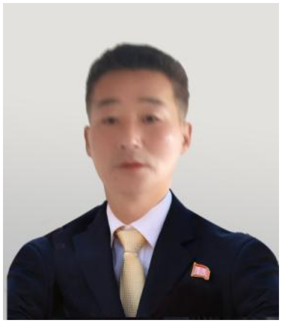
김창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내대시는 희생적인 헌신을 하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 리용할 삭도와 유희시설, 지하전동차도 먼저 타보시며 그 안전성을 검증하시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나서십니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라선지구와 북부지대에서 자연의 대재앙을 입었을 때 단 몇달사이에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새로운 거리와 마을을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리정화: 조선에서 련발적으로 일어나는 성과를 두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기적의 년대에 산다고 말하고있는데 조선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들과 기적적성과들은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만고생과 맞바꾼것들 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번에 세계가 악성비루스의 전파로 아우성치고있을 때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것만 보아도 인민을 위한 그이의 멸사복무의 사색과 실천에 대하여 잘 알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성철: 정치의 원숙함과 생명력은 정치가 오늘과 래일을 다 품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참다운 변혁적의미는 그이의 정치가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의 터전을 닦아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라는데 있는것이 아닙니까?



윤용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에는 우리 인민과 전인류의 리상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교육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실현하시여 미래사회를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키우시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이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년간 새로 건설된 북변의 삼지연시와 중평남새온실농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본보기공장들과 양묘장들에는 미래에 살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 감정과 정서를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리상과 포부가 비껴있습니다.

문정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학습장과 교과서, 필기도구뿐만아니라 교복과 신발, 가방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필요한것들을 국가가 부담하여 해결해주도록 하십니다. 정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미래를 사랑하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 가꾸어가시는 매혹적인 정치가이십니다.





리정화: 미래라는 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즐겨쓰시는 표현입니다. 그이께서는 새 거리의 이름도 미래과학자거리로, 교육자, 과학자들의 상점이름도 미래상점으로, 원격교육기지의 이름도 미래원으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산림복구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신것도 교육혁명, 과학중시로선과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것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강력한 국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창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짧은 기간에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해주신것은 조국과 민족, 인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인민사랑을 참다운 현실로 펼쳐놓은 령도자는 오직 조선의 **김정은**동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이를 매혹되지 않을수 없는 명인,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오성철: 옳습니다. 만민이 경탄을 자아내는 원숙하고 저력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조선인민은 더 좋은 래일을 확신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 화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몇년동안 시위투쟁을 하였습니까?》

렴정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는 브라질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리였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유선촬영실, 렌트겐촬영실, 항암치료실, 물리치료실, 체열실, 초음파실, 수술장을 비롯한 진단 및 치료실들과 수십개의 입원실들에 유선증과 유선암치료에 필요한 첨단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수술장을 비롯한 연구소의 모든 치료실들이 무균화, 무진화되여있었다. 이런 훌륭한 연구소를 녀성들을 위해 마련해주다니…

그는 복도에서 환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한 녀성에게 다가가 물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몇년동안 시위투쟁을 하였습니까?》

(시위투쟁을 하다니, 왜 시위투쟁을 할가?)

녀성환자의 두 눈은 올롱해졌다. 정말이지 그는 그 질문이 지금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하긴 통역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직역해주었던것이다.

《이런 연구소를 지어달라고 녀성들이 몇년동안 시위투쟁을 벌렸는가 말입니다.》

그제서야 말뜻을 알아차린 녀성환자가 방그레 웃으며 대답을 하였다.

《누구도 시위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녀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산원 전문과에서 유선종양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무상으로 받고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현대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새로 건설할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며 몸소 설계도면까지 보아주시였어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이의 높은 뜻을 이렇게 현실로 안겨주시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구소를 꾸려놓는데 만족해하지 말고 녀성들이 정상적으로 찾아와 검진을 받게 함으로써 유선증과 유선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예방의학정책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 연구소에 입원하였어요.》

녀성환자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였다. 브라질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의 눈에도 맑은 이슬이 핑그르 돌았다. 나라의 령도자가 녀성들의 건강까지 다 책임져주는 어버이가 되여주시다니…

그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브라질에서 우리 녀성들은 자기들의 전문종합병원을 건설해달라고 10 여년째 시위투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녀성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

그는 헤여지기전에 환자의 손을 잡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당신은 세상의 녀성들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렇게 현대적인 녀성전문병원을 가지고있으며 모두가 무상치료를 받는 이 현실은 우리를 감동케할뿐아니라 놀라게 합니다.

복속에 있으면서 그 복을 다 모르는 조선의 녀성들처럼 행복한 녀성들이 어데 있겠어요?!》

그의 말은 조선의 모든 녀성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삶의 보금자리를 그리는 온 세계의 모든 녀성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가장 짧은 《강의》

인 훈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끝난 2015년 10월 10일 오후경이였다.

오전 행사를 취재하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어느 한 나라의 기자 2 명이 당창건기념탑에 찾아왔다.

기념탑에 대한 해설강의를 듣던 그들의 눈길은 은연중 탑앞광장에서 춤을 추는 수백명의 청년학생들에게 쏠리였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열정에 넘쳐 락천적으로 춤을 추는 청춘남녀들의 모습은 자기네 나라에서 도저히 볼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었다.

당창건기념일이 청년들에게 저렇듯 기쁨을 준단말인가.

해설강의가 끝나기 바쁘게 기자들은 춤판으로 달려가 한 처녀를 이끌어냈다.

《우린 기자들입니다.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청년들인데 왜 당창건기념일에 이토록 기뻐서 춤을 추는것입니까? 조선에는 청년들의 명절이 없습니까?》

그들의 질문을 들은 처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질문을 난생 처음 들었던것이다.

언제 한번 당과 청년들을 분리시켜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청년문제를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언제나 청년들에게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을 주고 광활한 미래에로 이끌어주는 조선로동당!

당을 떠나선 한시도 살수 없는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최대의 희망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는것이다.



처녀가 한순간 입을 열지 못하자 기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정통을 찌르는 질문, 이것이 기자가 기자로 존재하게 하는 최고의 장끼라고 해야 하지 않을가.

두 기자가 서로 눈을 맞추는데 처녀가 입을 열었다.그 목소리는 가슴속에서 스스로 울려나오는 진정의 목소리였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년절이 있어요. 청년중시사상을 시종일관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에서 바로 청년절을 제정해주었답니다. 청년절이 오면 온 나라 인민들이 기뻐하고 같이 명절을 즐긴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당창건기념일을 더 크게 경축합니다. 왜냐하면 당은 우리 청년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어머니품이기때문이예요.

당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앞날도 있을수 없기때문입니다.》

처녀의 대답은 길지 않았다. 조선에서의 당과 청년의 호상관계에 대한 소박한 표현이였다.

《당이 청년들의 어머니가 되여준다? 이것은 정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흥분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은 어머니를 위해 목숨도 바치는것이 어머니와 자식간의 호상관계가 아닌가.

그런 어머니와 자식이 바로 조선의 로동당과 청년들이다!

이 세계에 셀수 없이 많은 당들이 있건만 그 모든 당들이 청년들을 품어주는 어머니가 되였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였을것인가.

정녕 조선의 모든 기적같은 창조물들은 바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는 자식들, 즉 당에 기쁨을 드리려는 청년들의 뻗치는 열정과 힘의 결정체일것이다.

아마 더 길게 말했다면 이다지도 감동되지 않았을수도 있었다. 기자들은 당창건기념탑앞에서 만난 평범한 한 처녀앞에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훌륭한 《강의》를 받았던것이다.





기사《살림집을 통한 국가의 혜택》을 읽고

더모트 하드손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영국조선친선협회 공식대표)

나는 《조선의 소리》 웨브싸이트에서 《살림집을 통한 국가의 혜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조선에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주고있다》고 썼다. 물론 나는 1980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때로부터 그리고 1992년부터 인민조선을 18번 방문하는 과정에 이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내가 자본주의영국에서 생활하는 조건에서 기사는 나로 하여금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영국의 현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집을 세낸다는것은 하나의 악몽이다. 세집은 한사람의 수입의 절반이상을 앗아간다. 처음 내가 주택을 한채 세낼 때 나는 수입의 40%를 지불하였다. 또한 집주인에게 담보금(선돈)도 내야 하는데 그 담보금이란 다시 찾기가 조련치 않다. 집주인들은 대체로 꾸며내고 날조된 리유나 구실을 대고 세집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담보금을 반환하지 않고있다. 대부분의 소유지들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다 팔아버린것으로 하여 최근에는 시청의 주택도 얻을수 없어 그 임대료가 눅지 않다. 울리치의 시청주택에서 살 당시 나는 수입의 33%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였다. 집세, 전기세, 가스세, 물세 그리고 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액수는 터무니없이 많아지게 되며 그것은 근로자 한사람의 수입의 100%에까지 달할수 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나는 런던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주택을 한채를 살수 있었다. 그 주택의 가격은 25만￡였다! 얼마간의 토지세는 지불할만 한 재산은 있었으므로 나는 집을 세내는 부담에서 해방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토지에 년간 1 000￡의 《수수료》가

붙는다는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최근 보다 많은 리윤을 챙기려는 토지관리회사는 원래의 액수의 두배가 넘는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였다. 백주의 강도같은 행위이다! 이 기생충들이 혹시 나무에 돈이 달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이것은 나의 첫번째 생각이였다! 한 친구는 내가 살집을 사면서도 굉장히 폭등하고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최악의 처지에 빠져들고있다고 말하였다. 유명한 작가 웰 재크 런던은 그 누군가가 공기를 병에 넣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자본가들은 그 공기를 팔아 리윤을 볼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인민조선의 공민들은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배정받고있다.

사회주의제도와 주체사상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령도아래 인민조선의 공민들은 선돈이나 사용료, 봉사수수료나 집세라는것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인민조선의 공민들이 정말 부럽다! 인민조선은 사회주의락원이다.







지상락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디아선군정치연구회 위원장
싸드나 하리쉬

사전에서 《락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는 천국 또는 행복한 곳 또는 조건이라고 되여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과 존엄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지상락원이다. 한때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리스도교들이 갈망하여 온 천당, 플라톤이 묘사한 정의로운 사회이며 토마스 모어가 상상하였던 리상향, 아우구스티누스가 동경한 하느님의 도시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을 받고있으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고 누구나 일자리를 가지고있으며 년로보장금과 같은 사회적혜택을 누리고있다. 가장 주목할만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고도의 사회적혜택을 실시하고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여년전인 1974년 3월에 세금이 폐지된것이다. 국가가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주고있다. 최근년간 만수대거리,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려명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이 련이어 일떠섰으며 살림집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배정되였다.









2016 년 함경북도의 북부지역에 큰물이 들이닥쳤을 때 국가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근 12 000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함으로써 피해지역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었다. 또한 국가는 농촌의 농장원들을 위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살림집들도 건설해주고있다. 이 모든 대규모건설사업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제재와 봉쇄속에서 진행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살림집을 배정받기때문에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기때문에 실업자도, 거지도 없으며 마약람용과 총기류폭력행위, 에이즈, 인신매매, 절도, 강도 등과 같은 사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나라들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악들이 대규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고아들에게 응당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이들은 사회의 귀중한 성원들로 취급되고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것들을 보장해주고있다. 최신설비들을 갖춘 애육원들이 건설되여 원아들에게 온갖 시설과 함께 건강식품들이 보장되고있다. 원아들에게 고급한 교육을 주는 초등 및 중등학원들이 건설되였다. 학원에는 훌륭한 체육 및 의료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들에 대한 모든 의료봉사도 무상으로 진행되고있다.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할수 있는 최신설비들을 갖춘 여러 전문병원들이 건설되였다. 이 병원들에서는 높은 자질을 갖춘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벌리고있다. 그 대표적인 병원들을 본다면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이다. 이 병원들에서는 인민들에게 무료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하는것과 무상치료외에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교육이 진행되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는 1959 년에 실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수많은 학교들과 대학들이 있으며 그 교육수준도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들의 교육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학교와 대학에 입학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자식들을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보낸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의 입학금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뛰여다녀야 한다. 최근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제분야와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과학기술이 중시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김정은**원수께서는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나라의 기본발전전략으로 내세우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여 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떤 적대계급도 없으며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였다. 따라서 계급적 및 사회적 불일치로 인한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계급간 불일치가 항시적으로 격화되고있으며 사회적 및 소득에서의 불평등이 날마다 커가고있다.

참다운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민소득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므로 소득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소득의 분배원칙은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이다. 부자와 빈자라는 사람들의 두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찾을수 없다. 부자는 온갖 사치한 소비를 하고 가난뱅이는 배고픔에 시달리는것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있다.

우에서 언급한, 인민들이 현대문명의 혜택을 누리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상황들에 비추어놓고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지상천국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김정은원수 만세!

주체의 사회주의조선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아프리카가 발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로헤젤레 깔론다 앙드레
(민주꽁고)



1997 년 6 월 19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그이의 로작은 우리들에게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굳건히 수호하여 각자가 자기의 사회문화적특성에 맞게 자기 인민의 자주를 담보하고 세계제국주의의 발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어느 다른 대륙들에서보다도 이 투쟁이 보다 격렬하고 장기적으로 벌어질것이다.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구현하는것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지배와 착취, 예속을 제 2 의 천성으로 하고있는 민족들의 발톱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해결책인것이다.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인민들이 서로 련대하고 힘있게 투쟁하여 우리 근로인민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아프리카의 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체계의 혜택을 받아 무지몽매를 밀어내고 새 기술에 보다 훌륭히 정통하게 하며 더는 착취와 예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에 선차적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소망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인민들은 자력갱생과 민족의 우수성에서 전진동력을 얻어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사람으로서의 긍지, 꽁고인, 꼬뜨디봐르인, 우간다인, … 으로서의 긍지, 우리의 피부색에 대한 긍지, 세계에 림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늘 문화혁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혁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력사적책임감을 자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자력갱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해줄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특성, 모두의 진보를 꽃피우자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아프리카인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천재적이며 력사적인 유훈을 받아안을 자격이 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느. 사란토야(몽골)

20 세기에 대영제국을 중심으로 지배하고있었던 세계식민지체계가 무너진 후 사상과 사회조직의 대립으로 두개의 대국 즉 미국과 쏘련사이에 대결이 존재했다면 20 세기말 쏘련의 붕괴로 하나의 초대국의 지배체계가 시작된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대국들의 지배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서방과 그 문화로부터 생겨나 발전한 미국식생활양식과 경제적가치관은 본연의 개성을 력사적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게 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나라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이 다음의 2 가지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로 국가가 자체의 사회경제를 지도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과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전에 국가라는 조직체계를 약화시켜 그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면서 《국가가 나중에 없어진다》고 한 허무맹랑한 공상가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발전도상나라들을 정치경제적예속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국가의 지도적기능을 부정하고 사회적잠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신식민주의자들이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도기능을 거부하고 《국가란 가장 무능한 지배인이다》는 거짓설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엄중한 침체적위기에 빠져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몽골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고수하는 위업을 우리 모두의 의무로 간주해야 할것이다.

둘째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하자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민족들간의 모순과 배타적행위 등 민족적분쟁은 셀수도 없이 수많이 발생하였지만 민족간분쟁으로 리익을 본 시기나 사람은 없었다. 반면에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우수성을 빛내여온 인민들은 커다란 성과와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외관상 힘으로 월등한것처럼 보이는 타민족, 타국가의 먹이감으로 되여 자기 민족을 반대하는 길을 선택한 보잘것없는 노예적민족들이 고유한 민족문화와 력사를 잃고 외국력사의 한부분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실례를 우리는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았다. 남에게 지나치게 예속된 사람을 가리켜 몽골사람들은 《족쇄를 채운 말》에 비유하군 한다. 족쇄를 채운 말이 먼길을 갈수 있겠는가? 물론 오늘의 세계에서 족쇄를 채운 말과 같은 민족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지만 목전의 금전적리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도 없이 외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외세가 던져주는 몇푼의 리익에 목이 매여 그들에게 봉사하는 보잘것없는 인간들도 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현명한 방책은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있다.

스위스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 진행

력사적인 카륜회의 90 돐에 즈음하여 2020 년 6 월 7 일 스위스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가 스위스남부지역 주체사상연구소조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스위스남부지역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와 소조성원들 20 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중요성, 생활력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현시기 자주성을 수호하는 길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 돐에 즈음하여 2020 년 6 월 12 일 남아프리카 가우텡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에서 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남아프리카 가우텡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인 가우텡주의회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남아프리카공산당 가우텡주 1 부비서, 가우텡주의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주정부수상고문과 아프리카민족대회, 남아프리카공산당, 로조련맹의 주요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자우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사상을 남아프리카공산당과 대중단체들의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로므니아에서 전국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 돐에 즈음하여 2020년 6 월 23 일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가 민족사회주의당 청사에서 《주체사상의 생활력》의 주제로 전국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이며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과 당최고리사회 성원들, 주체사상연구소조 지역책임자 7 명이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을 종합체계화하여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필연성을 론증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는 앞으로 연구보급사업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벌가리아에서 인터네트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돐에 즈음하여 2020년 6월 15일 벌가리아**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에서 인터네트업적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동지와 조선의 자주정치》라는 제목으로 소조책임자의 기조발언과 토론회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당건설과 활동에서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서와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이 세계적인 전염병위기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계속 큰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면서 제국주의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조선의 자주정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네팔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 돐에 즈음하여 2020년 6월16일－6월 19일 네팔에서 인터네트업적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네팔공산당(집권당)서기국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제부장인 전 네팔정부수상을 비롯하여 7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현시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정치를 실시하여 조선식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들이 고수될수 있게 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 돐에 즈음하여 2020 년 6 월 14 일 도이췰란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의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소조책임자와 소조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사상들을 깊이있게 연구하시였기에 주체철학을 완벽하게 완성하실수 있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상리론사업에서 이룩하신 업적과 선군정치를 구현하시여 사회주의를 수호하는데서 이룩하신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이딸리아에서 인터네트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 돐에 즈음하여 2020 년 6 월 10 일~18 일 이딸리아에서 이딸리아 밀라노주체사상연구쎈터, 이딸리아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위원회, 로마청년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의 공동주최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에 대한 인터네트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이딸리아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보체》편집국장, 로마청년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서기장, 밀라노주체사상연구쎈터 부책임자를 비롯한 70 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를 밀라노주체사상연구쎈터가 운영하는 홈페지에 게재하고 토론참가자들의 토론문들을 인터네트에 게재, 열람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일**령도자는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세계자주화위업실현과 반제투쟁이 나아갈 앞길을 밝힌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격찬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은 **김정은**위원장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련대성활동들을 적극 벌려나갈 결심들을 피력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6 돐에 즈음하여 2020 년 6 월 18 일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의 주최로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과 서기장, 파키스탄 주체사상연구녀성조직 책임자, 파키스탄주체연구쎈터 책임자, 파키스탄 청년 및 대학생조직 책임자 등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조선로동당의 혁명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진시키였으며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긍지를 안고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을 축원하였다.

새책 소개

실화집 《명절손님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작가들인 인훈, 렴정실이 쓴 실화집 《명절손님들》을 최근 금성청년출판사에서 출판발행하였다.



실화집에는 조선의 명절들에 찾아 온 여러 나라 손님들에 대하여 생활적으로 쓴 7편의 실화가 편집되여있다.

《교수손님》에서는 아프리카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나이제리아의 저명한 교수인 알하싼 맴맨의 인간됨을, 《미인은 누구에게 시집갔는가》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국회의원인 니가투 다그나체우와 그의 안해의 사랑이야기를, 《내 목소리가 들리오?》에서는 기네 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인 아브둘라이에 디알로가 조선에 와서 안해에게 보내는 마음속생각을, 《의사손님》에서는 영국의 어느 한 병원 의사인 아쉬쉬 굽따와 그의 가족이 조선방문결심을 하게 되기까지의 생활을 형상하고있다. 또한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이며 사회활동가인 에드몽 쥬브원사를 주인공으로 한 《풍류남아는 어디로…》,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하리쉬 굽따리사장의 손자, 손녀를 주인공으로 한 《꼬마손님들》,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비슈와나스리사장의 마지막모습을 형상한 《두루미는 오늘도 난다》 등은 생활의 진실성과 철학적심오성으로 하여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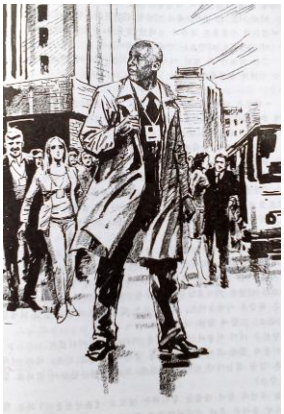
실화들은 또한 원형인물들을 형상한 삽화들로 하여 이채롭다.



교수손님



미인은 누구에게 시집갔는가



내 목소리가 들리오?



의사손님



풍류남아는 어디로…



꼬마손님들

독자들은 자주적인간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더 잘 알게 될것이다.

